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보고

이세민 / 연합통신 과학부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李祥羲))가 '제12차 월례보고'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간염과 간암에 대한 영양학적, 사회환경학적 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자문회의는 이 자리에서 주요 선진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간염 보균율과 간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조사자료를 제시하며 간염 및 간암 치료제를 포함한 신약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신약개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과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신약개발 종합대책으로 신약 상품화에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개발된 신약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번 자문회의의 건의는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간염과 간암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이의 해결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간염 보균자수는 4백만 명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부끄럽게도 보균율 면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이나 주문식단체 도입, 예방접종 사업 등의 간염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각종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편적인 방향에서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자문회의가 간염과 간암에 대한 영양학적, 사회환경학적 역학조사를 범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한 것은 참으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다.

일단 우리나라의 실태와 감염경로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한 후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간질환의 세계 랭킹을 낮추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고무적이다.

정부가 'G7 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를 추진하면서 소위 첨단과학으로 분류되는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치고 신약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다소 이색적이기까지 한, 매우 균형있는 정책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건의 속에는 첫째,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자금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고 둘째, 진정한 기술개발은 경제성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희 위원장은 이날 영국의 제약회사 글락소 사를 예로 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산업을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락소 사는 위궤양 치료제인 ‘라니티딘’ 한 품목을 개발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칼라 텔레비전 1천만 대의 총액과 같은 경상이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신약은 개발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부를 선물한다.

텔레비전이나 카메라, 자동차 등과 달리 의약품은 만드는 데 많은 부품이 드는 것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가져다 주는 부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나라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항상 실패해 왔다.

약리실험이나 동물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의 약효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능력이 부족해 눈물을 머금고 신약개발 직전의 상태에서 외국 제약회사에게 개발권을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화학연구소가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KR-25018’은 로열티 4.5%를 받는 조건으로 3억 3천만 엔이라는 ‘헐값’에 최근 일본 제약회사에 판매되고 말았다. 일단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매년 얼마나 많은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번 건의가 정책 당국에 의해 고스란

히 받아들여지리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가 최고기관에 간염 등의 역학조사와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건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인다는 것이 보건계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월례보고를 통해 간염에
대한 영양학적·사회환경학적
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할 것과
신약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생명과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매우 균형있는
정책제안이라 할 수 있다.